

# 日규제위, 오염수 방류 전 검사...내달 초순 방류 가능

### IAEA 최종보고서는 내달 4일 공개될 듯 현지 어민·유통업자·시민단체 지속 반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를 실시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현지 방송 NHK 등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청 검사관 4명이 원전에 들어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설비에 누출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 오염수를 희석 방류하기 위해 필요한 바닷물을 퍼 올리는 펌프와 문제 발생 시 방류를 멈추는 긴급차단밸브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도 검사한다.

검사는 빠르면 이달 말에 끝나고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 종료 후 약 1주 정도 뒤인 다음 달 초순에 도쿄전력에 '종료중'이 교부된다.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진다.

앞서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이번 검사에서도 합격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가동 상황을 살펴보는 시운전을 종료하면서 설비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서도 우려할 만한 지적이 제기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수 방류시설 설명하는 직원

일본 도쿄전력 직원이 지난 26일 후쿠시마 다치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자들에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계자는 이날

IAEA 최종 보고서는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

무총장이 도쿄 총리관저에서 면담할 것으로 알려진 내달 4일께 공개될 것이라 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IAEA가 지금까지 방류

방법 등이 타당하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사다 총리가 원전 인근 후쿠시마, 홋카이도, 미야기현 등 현지 어민, 유통업협회, 일본 시민단체의 설득 작업과 주변국, 태평양 섬나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2일 채택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서 지난 3년간 사용된 표현인 '단호히 반대'가 빠진 점에 주목했지만, 어민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방류 전후에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방류를 긴급 정지할 방침이다.

## 이탈리아 프로축구, 등번호 88번 착용 금지

### '히틀러 만세' 뜻... "반유대주의 구호·행동 시 즉각 경기 중단"

다음 시즌부터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A는 물론 하위 리그에서도 등번호 88번 착용이 금지된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내무장관이 27일 (현지시간) 축구 경기장에서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선언문에 담긴 조항을 설명하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고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이 보도했다.

등번호 88번을 금지한 건 숫자 88이 독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하는 의미를 담은 '하일 히틀러(Heil Hitler·히틀러 만세)' 경례를 뜻하기 때문이다. H가 알파벳의 여덟 번째 문자인 점과 관련이 있다.

이날 수도 로마에서 열린 선언문 서명식에는 피안테도시 내무장관을 비롯해 안드레아 아보디 스포츠·청년정책 담당 장관,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이탈리아축구연맹(FIGC)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언문에는 축구 선수들이 '하일 히틀러' 경례와 관련된 등번호 88번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히틀러손'(히틀러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등번호 88번 셔츠입은 관중.

현재 세리에A에서는 이탈리아의 마리오 파살리치, 라치오의 토마 바시치구연맹(FIGC)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언문에는 축구 선수들이 '하일 히틀러' 경례와 관련된 등번호 88번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측각 경기를 중단하고,장내스피커와 대형화면을 통해 관중들에게 경기 중단 사유를 안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탈리아의 일부 극성 축구 팬들은 폭력과 인종차별, 반유대주의로 악명이 높다.

지난 3월에는 로마의 스타디움 올림피코에서 열린 라치오와 AS 로마의 '로마 더비'에서 한 팬이 '히틀러손'(Hitler-히틀러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등번호 88번이 새겨진 라치오 셔츠를 입은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팬은 다른 2명의 팬과 함께 '로마식 경례'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로마식 경례는 전망 45도 각도로 팔을 쭉 뻗어서 하는 경례법으로 베니토 무솔리니 통치 시절, 이 경례법이 널리 쓰여 '파시스트 경례'로 불린다. 독일 나치식 경례와도 흡사하다.

로마의 유대인 지역사회 회장인 루스 두레겔로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언급하며 "모두가 이것을 내버려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나"며 반발했다.

## 필리핀,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자 1천명 구출

### 마닐라 부근서 대대적인 단속

필리핀 경찰이 인신매매를 당해 온라인 카지노에서 일해 온 외국인 1천여 명을 구출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이들 전 야간에 수도 마닐라 부근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이같이 조

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개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적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필리핀에 들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필리핀 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자인

미셸 사비노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현지 경찰은 취업 사기를 당해 감금된 상황에서 보이소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외국인 1천여명을 구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거주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짜 은행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 클림트 마지막 초상화, '유럽 최고가' 1천400억에 낙찰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사진)이 유럽 내 예술작품 경매 최고가에 낙찰됐다.

27일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경매사 소더비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작품이 8천300만파운드(약 1천413억원·수수료 포함)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최종 구매자는 홍콩 수집가를 대리해 경매에 참여한 아트 어드바이저 패티 윙이라고 소더비는 전했다.

앞서 유럽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

린 예술작품은 2010년 1억 430만달러(약 1천355억원)에 낙찰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 '걷는 사람 I'이었다.

회화 작품 가운데서는 2008년 8천40만달러(약 1천44억)에 낙찰된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유럽 경매 사상 최고가였다.

'부채를 든 여인'은 이들 기록을 모두 갱신하며 전 세계 경매에 나온 클림트 작

품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으로 기록됐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